

전도자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복음으로 여는 호세아- 호세아 1:2, 요한복음 4:16-26

정윤돈 목사님

* **호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나라 하시니

* **요4:16-2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성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입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절대미션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문제도 살아있으니까 오는 것이다. 죽으면 갈등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문제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면 그게 천만금으로 바뀌어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다. 바보같이 현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쌓여있을 것이다. 이렇게 헌신하는 게 왜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히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갈등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값진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 두지 말라고 어려움도 주신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우리가 잘될 때의 교만이다. 교만이 원죄의 뿌리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문제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고 싶게끔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단 0.1초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들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

심을 보여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주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영접하고 전도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전적으로 구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속에서 발버둥치면서 노력하지만 그 발버둥은 구원받을 수 있는 노력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와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지만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구원받을 수는 없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구원하신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간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살리는 그 은혜가 놀랍다. 전도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증인이 되셔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확실한 복음과 언약을 가지면 고멜과 같은 여자도 변화시킬 수 있고 예비된 제자도 만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엘리트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다섯 명이 있을 정도로 음란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다. 여러분은 다락방도 오래 하지 말고 정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를 찾도록 기도해라.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한 현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냥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정말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이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혹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주실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찢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신다. 그러나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낫게 하신다.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삼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1분, 1초도 속지 않으시기 바란다. 문제가 왔다면 항상 기뻐하고 더 큰 계획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 교단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우선 호세아서의 개론과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먼저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호세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의 사역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8세기 중반에 활동한 선지자로, 예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전 722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전 722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다. 그리고 앗수르는 민족을 혼합해 피와 종교를 섞어버렸다. 그제 사마리아 땅이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땅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 땅에서 예배하면 음란한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 바란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전 외적으로 강성했지만, 내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던 시기였다. 국가가 강성한다고 잘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게 중요하다. 아무리 강한 로마와 페르시아, 바벨론도 한 순간에 없어졌다. 오히려 약하고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 호세아서의 기록목적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영적 배교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호세아서의 가장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부분이다. 유대인의 거룩한 지도자가 유대에 유명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충격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율법주의로 바뀐다. 여러분은 음란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다. 물건을 탐하면 도둑질이다.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

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겨우 받겠지만 참된 제자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거나 진도운동을 할 수는 없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타락해 무능하고 가치 없고 희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다. 여러분은 빌레몬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

1. 호세아서 전체를 장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다.

(1) 1장에서는 호세아의 상징적인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배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녀의 이름을 이상하게 짓도록 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와 부인이 문제있게 하시고 호세아서를 쓰도록 하셨다. 원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란다. 가정 안의 원수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셨다.

(2)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아내의 불신양적인 행위로 비유하며,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한다. 호세아 2장 5절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은 떡과 기름과 술과 양털을 주는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거룩함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란다.

(3) 3장에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멜이 도망가면 호세아가 데려오는 장면이 반복된다.

(4)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지식 부족, 우상숭배, 부도덕성을 비판한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한다.

(5) 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

(6)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회개와 복음을 모르는 신앙을 비판한다.

(7)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순종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한다.

(8)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9)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심판이 다가 올 것임을 예언한다.

(10)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행위와 우상숭배를 다시 한 번 고발하고, 그로 인해 다가올 심판을 강조한다.

(11) 그러나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셨고, 그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내용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함에도 또 잘못하고 징계를 받는 우리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넘어지지만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12)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다시 언급하며, 그들의 교만과 거짓된 거래,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비판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잘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13) 13장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한다.

(14)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강조된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옥같고 다 망하고 다 문드러지고 처참한 세상에서 거듭나도록 만들어주는 진도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2. 호세아서에 담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 호세아 1장 10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이שראל 열 지파가 다 끌려가고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과 번성과 선교를 약속하고 있다. 즉 237나라 5천 종족 땅끝복음화를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하신 것처럼 전 세계 이 사역

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세계에 사실적인 치유센터, 선교센터를 세워나가야 한다. 세계의 엘리트들을 찾아내야 한다.

(2)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인지와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했다. 이게 핵심요절이다.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장가가리는 건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장가오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결혼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세계 237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3) 호세아 3장 5절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와 그의 은혜로 나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와 그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4)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인들과 윤리, 도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없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 즉 완전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우리는 이 안에서 성경적 진도운동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없는 선택과 사랑을 받았는데 조건으로 따질 게 없다. 진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의 자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을 때리신다. 정죄하지 않고 참복음의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대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와 나라, 시대를 축복하신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5)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애굽에서의 귀환을 예언하는 구절로 인용되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앞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고멜과 수가성 여인과 같이 음란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도록 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완전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앞당겨지는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